

커피는 여자가 타야 제맛입니까?  
꽃 전달 여자직원이 해야 하나요?

# 아직도 이런 직장문화가...

광주 관공서·경찰서 등  
성차별 관행 개선 목소리  
국회 여성 근로자들도  
성평등 캠페인 펼쳐

회를 불편·부당 사례로 꼽았고,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 국회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실문에 참여했던 한 근로자는 “의원실 남자 보좌관은 모든 보좌진 다 있는 자리에서 나를 꼭 짚어 ‘여기 커피 줘’ 이라고 시킨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나를 지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근로자는 “배달음식을 먹을 때면, 음식을 차리는 것부터 정리하는 것까지 여성들 몫”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국회페미 활동가는 페이스북에서 “입법기관인 국회부터 성평등 일터가 되어야 한다”며 “성평등한 대한민국 국회가 될 때까지 캠페인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 등 주요 관공서에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는 불평등한 성문화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5일에는 본인을 광주시에 근무 중인 여성공무원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의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A씨는 “꽃을 꼭 여자 직원이 전달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게시 글을 통해 아내가 광주시청 내에서 겪고 있는 부당함을 지적했다.

A씨는 “제 아내는 시청 여직원이라는 이유로 기관행사 때마다 중요 인사들에게 꽃을 전달하는 일을 강요받고 있다”며 “본인들의 딸이라면 행사 참여를 강요하고 꽃 전달을 시키겠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게시 글 말미에 광주시장의 결단과 이 같은 부당한 관례를 해소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다른 관공서의 여직원은 “치열한 경쟁 시험을 거쳐 공무원이 됐지만, 공식 업무 외에 시간별로 간부들의 간식과 차를 챙겨 드리고 있다”면서 “가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 때면 자존심 이상하고 화가 난다”고 했다.

타 집단에 비해 성차별적 요소가 없어야 할 법 집행 조직인 경찰은 정도가 더욱 심하다.

최근 광주 모 경찰서를 방문한 한 인사는 “간부급 직원 몇 명이 만날 일이 있었는

데, 사무실에 들어갈 때마다 어김없이 같은 과에 근무하는 여자경찰들에게 차를 타 줄 것을 요청하더라”면서 “차를 타달라는 요구가 강압적이지 않았고 요청을 받은 여경도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차를 제공하는 듯 했지만, 차를 대접받은 입장에선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상당수 여성 공무원들은 민원인이나 손님 등에 대한 일반 커피 대접은 사무실 자판기를 설치하면 되고, 행사 시 축하 꽃 전달 같은 일은 남녀 구분 없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연우 광주여성노동자회 부회장은 “여성 근로자의 자연스러운 차 대접 문화는 남성 중심의 대한민국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성평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일터에서의 성평등을 시작해야 모두가 평등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 여수 거북선 조형물 오르는 계단 붕괴 사진 찍던 가족 여행객 5명 추락 부상

여수에서 거북선 조형물로 오르는 계단이 무너지면서 가족 여행객 5명이 부상을 당했다.

9일 여수시와 여수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8시 50분께 여수시 이순신 광장에 설치된 전라좌수영 거북선 조형물로 오르는 계단(참)이 파손됐다.

이날 사고로 관람객 5명이 높이 3m 계단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의식을 잃었던 A(여·60)씨는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이후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허리를 다친 B(여·82)씨는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나머지 3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사고는 거북선(길이 30m·폭 10m) 조형물에 오르는 높이 3m의 계단 일

부가 무너져 발생했다.

사고가 난 계단 부분은 계단참(계단 중간이나 끝부분에 폭이 넓게 돼 있는 부분)으로도 불리는 데, 거북선에 오르는 관람객이 쉬거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휴식공간이다.

이날 사고는 계단참에 오른 가족 여행객 7명이 사진을 찍던 중 구조물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5명이 추락해 발생했다는 게 여수경찰의 설명이다.

지난 2017년부터 지금까지 수차례 부분 개보수 작업을 이어온 여수시는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나서는 한편 부상자 지원 등 후속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또 거북선 임시폐쇄와 정밀 안전진단, 보수공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 “순천 전자발찌 강간살인범 사형해 달라” 피해여성 아버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순천에서 전자 발찌를 찬 남성에게 살해된 여성의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에 법인을 사형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지난 4일 올린 글에 대해 5일 만인 9일 20만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하며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지방이 많은 나이 팔십 노인”이라고 밝힌 이 남성은 ‘우리 딸을 성폭행한 후 잔인하게 목 졸라 죽인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라는 글에서 “살인마를 살려두면 언젠가는 우리 주변에 뽀빠들이 우리 딸처럼 또 살인을 당할 지도 모르겠다”며 엄벌에 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우리 딸은 학원 영어강사를 10여년째 하면서 정말 착하고 바르게 살아왔다”며 “그런 우리 딸을 무자비한 살인마가 성폭행하고 잔인하게 목 졸라 죽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성폭력 전과 2범인 살인마

가 범행 당시 전자 발찌까지 차고 있었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다”며 “우리나라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순천경찰에 따르면 A(36)씨는 지난 달 27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전 8시 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의 약혼녀인 B(43)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다가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B씨는 A씨가 강간하려 하자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다. A씨는 화단에 떨어진 B씨를 다시 집으로 옮겨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차례 성범죄로 모두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이번에는 전자 발찌를 차고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지난 5일 A씨를 강간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 층간 소음에 불만 품고 윗층 불지르려 한 이웃 광주북부경찰, 40대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9일 본인이 사는 아파트 윗층 문 앞에 불을 지르려한 최모(45)씨에 대해 현주건조물 방화 미수의 혐의로 불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광주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집 위층에 사는 A(68)씨와 문 앞에서 불을 지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휴대용 가스버너 위에 선풍기를 올려놓고 불을 붙였으나 A씨가 문 앞에서 나는 타는 냄새를 맡고 곧바로 불을 끄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 결과 만취한 최씨는 평소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태극기 터널 따라...나라사랑 피크닉 신나오  
광주지방보호청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지난 8일 광주시티미미술관 잔디광장에서 열린 '달달라나라사랑 피크닉'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태극기 강통 열차' 체험 이벤트를 즐기고 있다.

## 오늘 전두환 재판...헬기사격 증인들 법정

30년 넘게 5·18 기록 수집한  
정수만 전 유족회장 등 6명 출석

9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전씨의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형사사건 피고인 신분인 전씨는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법원으로 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아 선고기일을 제외하고는 법정에서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3일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광주에서 군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 5명이 법정에서 선 데 이어 이날도 헬기 사격을 목격하거나 관련 기록을 수집한 시민 6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진다.

30년 넘게 5·18 관련 증언과 공공기록을

수집·연구한 정수만 전 5·18 유족회장과 헬기 사격을 직접 목격한 시민들이 증인으로 나선다.

전씨는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2017년 4월 재판 회고록에서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5급 공무원 합격자 연수 중 동료 여성 몰카 찍다 '퇴학'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행정고시)에 합격해 연수를 받던 남자 교육생이 동료 여자 교육생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퇴학 조치.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5급 공개 합격자 A씨는 지난달 초부터 충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중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이용해 치마

를 입고 있던 여성 교육생 B씨의 뒷 모습을 몰래 촬영하다 다른 동료에게 적발됐다.

○...인재개발원 교육생 윤리위원회는 A씨의 행위가 교육생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지난달 퇴학 조치를 결정했는데,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A씨는 퇴학 처분에 따라 공직 채용 후보자 자격을 잃어 공무원에 임용되려면 다시 시험을 봐야 한다”고 설명.

/연합뉴스

# 임야 단독주택

- ▶ 바로삽니다
  - ▶ 지분물건 환영
  - ▶ 단, 맹지는 매입 불가
- 문의. 010-6834-7400

##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 팬션·전원주택지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 영광 백수해안도로 칠산바다 전망 좋은 1130㎡ 1억2천

### 교 환

- 순천 낙안 민속마을 저수지 옆 팬션 대지 2180㎡ 팬션3동 372㎡ 8억
- 광산구 송정동 상업지 311㎡ 집 132㎡ 은행 9천 매도 3억천

### 투자·매도·교환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대지 641㎡(주택있음)별장형 단독 좋은 1억5백
- 서구 마북동 대지 384㎡ 투자에도 좋은 5억8천
- 광산구 본덕동 그린벨트 자연녹지 1465㎡차량진입가 1억6천
- 광산구 쌍암동 대형빌딩 중의 2층 25㎡ 과일점 전문점 시설완비 1억5천
- 별장·나주시 다시면 화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나주시 영산포역 부근 상업지 1025㎡ 위치좋은 6억3천
- 북구 두암동 4차선 950㎡ 병·의원 등 적합 18억7천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 상 가 건물

- 총장로 4가 땅 261㎡ 건물 1128㎡ 은행 11억 전세 1억8천 월 1000. 25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 특 급 물 건

-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3647㎡ 약국용 건물과 교환가능 33억
- 영광 영산면 비닷가 땅 3563㎡ 팬션2동·식당 건평 700㎡ 은행 3억 매도 6억5천
- 무안군 운남면 바다인접 약 9400㎡ 전원주택·요양시설 적합 3억3천
-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2346㎡ 팬션·노인시설 등 적합 4억7천
- 남평읍 드들강 모델 땅 2741㎡ 건평 1748㎡ 식당과 28실 17억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 신안군 암태면에서 7분거리 독립성 56233㎡ 독립생활적합 3억6천
- 목포 옥암동 여관 대지 439㎡ 건평 989㎡ 객실 27 은행 4억 매도 6천만원
- 담양군 무정면 땅 3850㎡ 별장 147㎡ 조경완벽 팬션좋은 7억2천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진, 농성초교옆문앞

#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운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